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3 No.3 Serial No.135 2015.6. 15~29

ISSN(print) 1229-1331
http://dx.doi.org/10.7466/JKHMA.2015.33.3.15

일본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하는 자녀에 대한 민족사회화 수행 : 만 7-18세 자녀를 중심으로

Perceived Enactment of Ethnic Socialization by Japanese Marriage Migrant Mothers of 7- to 18-Year-Old Children

윤수현(Soohyun Yoon)[1], Grace H. Chung[2*]

[1]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ethnic socialization enacted by Japanese marriage migrant women currently raising 7- to 18-year-old children in Korea. To accomplish this goal, we examine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What is the level of ethnic socialization enacted by Japanese marriage migrant mothers? (2) Does the level of ethnic socialization vary by demographic and ethnocultural factors? (3) To what extent do demographic and ethnocultural factors influence the enactment of ethnic socialization by Japanese marriage migrant mothers? The sample consisted of 243 Japanese marriage migrant women currently raising 7- to 18-year-old children in Korea. For data analysis, T-test, correlation, ANOVA,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Also, we performed separate analyses for two subtypes of ethnic socialization in particular, namely cultural socialization and preparation for bias. Ethnocultural factors examined in this study were the level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Japanese ethnic identity, and husbands' ethnic orientation in childrearing.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results showed that Japanese marriage migrant women enacted moderate levels of cultural socialization and preparation for bias. Second, Japanese marriage migrant women's cultural socialization and preparation for bias were both positively related to the levels of women's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Japanese ethnic identity. Also, the younger the age of the firstborn child, the more preparation for bias these women performed. In addition, women whose Korean husbands wanted to raise their children more biculturally performed more cultural socialization compared to those with Korean husbands who wanted to raise their children as Korean. Thir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women's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ethnic identity positively predicted both types of ethnic socialization. Also, Korean husband's bicultural orientation towards childrearing predicted a higher level of cultural socialization by Japanese marriage migrant women.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basic information about ethnic socialization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which can be useful for promoting positive self-identity among multicultural children. Furthermore, the results suggest that husbands' support and cooperation in ethnic socialization can be crucial for marriage migrant women to socialize their children utilizing their cultural and experiential resources.

▲주제어(Key words) : 민족사회화(ethnic socialization), 다문화가족(multicultural families), 결혼이주여성(marriage migrant women)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및 다문화생활교육센터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2015년 다문화생활교육센터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포함함.

* Corresponding Author : Grace H. Chung,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Korea, Tel: +82-2-880-1620, E-mail: gracechung@snu.ac.kr

Ⅰ. 문제제기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함에 따라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들은 자신이 성장한 문화와 이질적인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 이 때 결혼이주여성은 자녀양육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돌봄을 일상적으로 담당하는 것 외에도 이주민으로서 모국의 문화와 언어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역할도 수행한다(J. Yoon & H. Yoo, 2011). 다문화사회에서 자신이 속한 민족을 포함한 다른 민족·인종에 대한 정보와 태도에 대해 주로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부모이기 때문에(J. Hamm, 2009), 한국 다문화가정 내에서는 특히 소수민족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화가 이와 관련이 높을 것이다(D. Hughes, 2003).

한국사회는 1990년대 이후 다문화사회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결혼이주여성의 급격한 증가로부터 기인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한국남성과 외국출신여성의 국제결혼은 18,307건으로 전체 혼인건수 대비 약 5.7%를 차지하였다(Statistics Korea, 2014). 이는 비록 2005년 30,719건에 비해 감소한 추세이지만, 이와 같은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의 형성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형성에 따라 다문화배경을 가진 아동 및 청소년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다문화가정 자녀는 191,328명으로 이는 2007년 44,258명에 비해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3). 이와 같은 다문화가정은 두 개 이상의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일반 한국인 가정(mono-racial Korean family)과 다른 부모-자녀 역동과 사회화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 중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다문화배경뿐만 아니라 주류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의 적절한 사회화는 아동 개인의 심리적 적응 및 긍정적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A. Rollins & A. Hunter, 2013) 다문화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M. Kim, 2012).

민족사회화(ethnic socialization)란, 소수민족부모가 자녀에게 출신민족의 문화 및 배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민족정체성과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사회화 과정을 일컫는 개념(D. Hughes et al., 2006)이다. 부모의 민족사회화는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급격한 다문화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민족사회화 수행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하는 민족사회화 수행양상을 살펴보고, 어머니의 인구학적·민족문화적(ethnocultural) 요인들이 이들의 민족사회화 수행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민족사회화는 소수민족가족 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출신민족의 문화에 대해 가르치고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사회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차별에 대비시키거나 그에 대해 주의를 주는 것 등을 포괄한다. 이는 소수민족부모의 부모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D. Hughes et al., 2006)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먼저 다인종사회로의 전환을 경험한 미국에서는 소수인종가족 내의 민족사회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여겨왔다. 이민자 가족들은 부정적 편견 및 차별과 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소수인종가족 내 고유의 민족사회화 과정을 통해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였으며(G. Knight, M. Bernal, C. Garza, M. Cota, & O'campo, K, 1993; Y. Ou & H. McAdoo, 1993; S. Quintana & E. Vera, 1999), 더 나아가 이 사회화 방식은 인종에 대한 자녀의 태도나 선호를 예측했다(M. Spencer, 1983). 최근에는 그 연구 범위가 다인종가족(multiracial family)에도 확장됨에 따라 단일인종가족과 차별화되는 다인종가족의 민족사회화 역동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K. Rockqeumore, T. Laszloffy, & J. Noveske, 2006; A. Rollins & A. Hunter, 2013).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또한 한국남성과 외국출신여성으로 구성된 다인종·다민족가족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이 수행하는 민족사회화는 자녀가 자신의 이중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인종에 대해 갖는 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M. Kim, 2012).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 역할에 대해 살펴본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이들의 양육행동을 '한국어 능력과 한국적 양육태도'의 기준으로 평가해왔기 때문에 이들을 도움이 필요한 무능한 부모(incompetent parent)로 묘사해왔다. 따라서 기존연구는 이주여성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 및 한국식 훈육능력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가 발달의 어려움을 겪으며(M. Park & B. Lee, 2010), 이주여성 또한 이로 인해 죄책감과 무력감(Y. Park, 2010), 그리고 낮은 양육 효능감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 Bae et al., 2010; H. Kim & J. Kim, 2015). 이와 같이 외국출신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모국어/모국문화의 영향력을 배제한 채 한국어/한국문화만을 중심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H. Kim(2009)은 문화적응을 '개인이 둘 또는 그 이상의 문화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의하며 동화, 통합, 분리, 주변화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출신문화를 유지하면서 한국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통합유형의 문화적응을 보이는 결혼이주여성이 높은 양육 효능감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모국문화 고수의 중요성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출신문화가 자녀에게 전달되는 양상은 알 수 없다.

이주여성의 어머니 경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국의 문화적 자원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이 이주사회에서 살아감에 따라 얻는 경험적 자원에도 주목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으로 이주한 후 소수민족 이주민으로 문화적응, 차별, 편견 등을 경험하게 되며(D. Shin, 2012), 이로부터 형성된 주류사회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은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은연 중에, 혹은 의도적으로 전달될 것이다(D. Hughes, 2003). 이는 후에 주류사회에 대한 자녀의 태도뿐만 아니라 다문화배경 때문에 자녀가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경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주여성의 경험 또한 하나의 중요한 사회화 자원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자원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양육행동에 대해 살펴본 국내 선행연구는 이들의 민족사회화 양상을 기초적으로 묘사한 M. Kim(2012)의 연구가 유일하다. M. Kim(2012)은 한국 다문화가정 내의 민족사회화 수행수준에 대해 탐색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모국문화와 언어에 대해 가르쳐주는 '문화사회화'와 자녀가 경험할 수 있는 편견과 차별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편견에 대한 대비'를 가장 많이 수행하였다. 출신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주여성의 사회화 양상은 이후 자녀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M. Kim(2012)의 연구는 민족사회화에 대한 심층적 연구의 중요성을 시사했지만, 본 개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질적 연구에만 도입된 실정이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민족사회화 하위유형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문화적·경험적 자원을 사회화에 활용하는 양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어 능력 및 한국적 양육태도를 기준으로 부분적으로만 묘사되어온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 경험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종속변수의 경우 M. Kim(2012)의 선행연구결과에 따라 이주여성이 가장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민족사회화의 두 하위유형, 즉 '문화사회화'와 '편견에 대한 대비'로 설정하였다. 이 때, 민족사회화 수행주체의 경우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일본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족사회화는 소수민족이 자신의 문화적 자원 및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민족 집단에 따라 사회화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민족사회화의 수행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도 출신국가에 따라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 또한 사회화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연령을 취학연령 이후의 미성년(만 7-18세)으로 한정하였다. 민족사회화의 경우 민족·인종에 대한 인지적 발달이 시작된 이후, 즉 미취학아동보다는 학령기·청소년기 자녀에 대해 더 많이 수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D. Hughes et al., 2006) 이로 자녀연령을 한정지음으로서 보다 실질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하는 민족사회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영향요인의 경우 이주여성의 인구학적 변인뿐만 아니라 차별경험과 민족정체성, 자녀양육에 대한 남편의 문화적 태도와 같은 민족문화적 변인도 민족사회화 수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도 주목하였다. 이는 민족사회화 수행유형 선택에 있어서 부모가 민족·인종과 관련하여 갖는 태도, 신념,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D. Hughes,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 Hughes(2003)가 제시한 틀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민족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의 인구학적 요인과 민족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일본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자녀에게 민족사회화를 어느 정도 수행하는가?

<연구문제 2> 결혼이주여성의 인구학적 및 민족문화적 변인에 따라 자녀에 대한 민족사회화 수행수준이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3> 결혼이주여성의 인구학적 및 민족문화적 변인이 민족사회화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민족사회화

사회화란, 한 개인이 성장하는 문화에서 유능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행동, 가치관, 문화 등이 전수되는 과정(transmission process)인데, 자녀의 사회화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E. Maccoby, 2007). 이 때 부모가 거시적인 사회문화적 맥락과 상호작용해온 방식은 그들이 자녀를 사회화하는 양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R. Parke & R. Buriel, 2006), 부모가 처한 맥락에 따라 사회화 방식이 다양해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화를 수행하는 부모가 소수민족·인종에 속하는 경우 부모가 주류사회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편견이나 불이익으로 인해 부모의 사회화 양상이 보다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D. Hughes, 2003).

우리나라보다 먼저 다인종·다민족사회로의 전환을 경험한 미국의 경우 소수인종부모가 수행하는 사회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있다. 국외선행연구에 따르면 민족·인종에 관한 정보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달되는 과정(transmission)을 광범위하게 민족사회화(ethnic socialization)라고 일컫는다. 민족사회화는 주로 라틴계나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소수민족들이 주류사회에 동화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민족에 대한 충성, 민족정체성, 전통문화의 전수 등을 위해 수행하는 사회화에 초점을 두고 시작된 개념으로, 인종사회화(racial socialization)와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소수민족부모가 자녀에게 수행하는 민족사회화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D. Hughes & D. Johnson, 2001). 첫 번째는 문화사회화(cultural socialization) 유형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민족의 유산과 역사를 가르치고, 문화적 관습과 전통을 촉진시키며 자녀의 문화적, 인종적, 민족적 자부심을 의도적으로, 혹은 은연중에 고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관련 책과 음악을 접하게 하고, 민족 고유명절을 보내며, 전통음식을 먹고 모국어를 사용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문화사회화 유형은 자녀양육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며 흔히 나타나는 유형으로 일정하게 보고되고 있다(P. Bowman & C. Howard, 1985; J. Hamm, 2009; D. Hughes & L. Chen, 1997; D. Hughes et al., 2006; G. Knight et al., 1993; M. Thornton, L. Chatter, R. Taylor, & W. Allen, 1990). 또한 문화사회화의 중요성은 질적 연구에서도 다루어져왔으며, 미국의 이민자 가족들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모국문화의 가치 및 신념, 관습 등을 전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 Pessar, 1995; M. Zimmerman, J. Ramirez-Valles, K. Washienko, B. Walter, & S. Dyer, 1996). 국내 선행연구에 의하면 한국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 또한 다른 민족사회화 유형에 비해 문화사회화를 자녀에게 가장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 Kim, 2012).

두 번째, 편견에 대한 대비(preparation for bias) 유형 또한 민족사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어 왔다. 이 유형은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편견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고 그 차별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편견에 대한 대비는 문화사회화에 비해 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지만, 소수민족부모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J. Hamm, 2009)에 따르면 부모가 편견과 관련되어 자녀와 논의하는 과정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편견에 대한 대비의 경우 민족 집단에 따라서 수행하는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며(D. Hughes et al., 2006), 다양한 민족 집단이 있는 미국의 경우 억압의 역사적 경험이 있는 흑인가족이 다른 이민자 가족에 비해 편견과 관련된 내용을 자녀에게 더 많이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 Ward, 1991).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 또한 출신국가에 따라서 편견에 대한 대비의 수행 양상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M. Kim, 2012).

세 번째는 불신촉진(promotion of mistrust) 유형으로 이는 부모가 다른 민족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경계심과 불신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유형은 자녀가 차별을 대처하는 데에 필요한 조언을 포함하지 않고 인종적 장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대처하는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두 번째 유형과 차별화된다. 따라서 불신촉진은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보다는 효능감 저하와 주류사회에 대한 소극적 자세를 촉진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F. Biafora et al., 1993). M. Kim(2012)에 의하면 한국 결혼이주여성 어머니의 경우 불신촉진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데, 이는 한국의 독특한 이주맥락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서구사회 소수민족의 경우 부모 모두 이민 온 소수집단 출신이기 때문에 부모의 차별경험이 주류사회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어지기 쉽지만, 국내 다문화가족의 경우 아버지가 대부분 한국인이기 때문에 자녀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 Kim(2012)의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많이 수행한다고 보고된 문화사회화와 편견에 대한 대비에 주목하였다.

위와 같은 민족사회화는 자녀가 본인의 민족과 다른 민족에 대해 갖게 되는 태도와 가치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경험과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효능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P. Bowman & C. Howard, 1985). 부모가 민족사회화를 잘 수행했을 경우 자녀는 민족에 대한 지식, 자부심(E. Barnes, 1980),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하여 이는 정체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M. Spencer, 1983). 또한 자녀가 현실에게 경험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해 잘 대비시킨 경우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 효능감이 높았다(P. Bowman & C. Howard, 1985). 이에 반해 민족사회화가 잘못 수행되거나 부모가 민족적 장벽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면(D. Hughes & D. Johnson, 2001) 오히려 불신과 분노를 촉진하여 자녀가 부적응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S. Marshall, 1995), 이에 따라 사회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K. Yang, 2009; J. Phinney, 1990).

한국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도 그 부모, 특히 소수민족인 결혼이주여성이 수행하는 민족사회화는 자녀가 민족에 대해 갖게 되는 태도뿐만 아니라 심리적 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국내연구의 경우 네 명의 일본 출신, 세 명의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민족-인종사회화 수행양상을 탐색적으로 살펴본 M. Kim(2012)의 질적 연구가 유일하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 집단 내에서도 출신국가에 따라 생활적응(K. Chung, 2008)과 문화적응양상(H. Choi, 2009)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각 출신국의 이주여성이 수행하는 민족사회화도 상이해질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민족사회화 수행을 연구함에 있어서 하나의 집단에 한정 지을 필요가 있으며, 본고에서는 일본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2. 민족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민족사회화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시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부모행동(parental practice)은 부모·자녀의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생활하는 맥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소수민족부모의 민족사회화에 관한 연구에서 다루어진 요인들은 크게 두 축으로 구분될 수 있다(D. Hughes et al., 2006). 첫째는 사회화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인구학적인 요인들로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연령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는 부모가 소수민족으로 갖는 신념이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는 경험과 같은 민족문화적(ethnocultural) 변인으로서, 부모의 민족정체성과 차별경험이 이에 해당된다.

소수민족부모는 자신의 직업, 소득수준 및 교육경험에 따라, 즉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민족·인종에 대해 상이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국외선행연구에 의하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부모가 편견 및 차별을 더 많이 인지하기 때문에 자녀를 대상으로 민족사회화를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 Williams, 1999). 즉, 높은 교육 및 소득수준의 부모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소수민족부모가 자녀에게 문화사회화와 편견에 대한 대비를 더 자주 수행(D. Hughes & L. Chen, 1997)하고, 출신문화가 더 많이 표현된 가정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 Caughy, P. O'Campo, S. Randolph, & K. Nickerson, 2002). 하지만 이외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민족사회화 수행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G. Knight et al., 1993)고 보고하거나 중간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지위에 비해 민족사회화를 많이 수행한다는 곡선관계(M. Caughy et al., 2002; M. Thornton, 1997)를 보고한 연구결과도 있어 민족사회화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교육 및 소득수준, 취업여부와 민족사회화 수행 간에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부모의 사회화는 일반적으로 그 대상인 자녀의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E. Maccoby, 2007), 특히 민족사회화의 경우 인종·민족과 같이 복잡한 사회적 개념에 대한 전수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녀의 인지능력 및 경험에 따라 부모의 사회화 수행수준이 상이해질 수 있다(D. Hughes & L. Chen, 1997; D. Hughes & D. Johnson, 2001). 미취학아동의 경우 인종과 같은 사회적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가 인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하기 어렵지만, 청소년 자녀의 경우 이에 대한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자녀가 직접 차별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모가 이들을 대상으로 관련된 사회화를 더 많이 할 수 있다(D. Hughes & D. Johnson, 2001). 하지만 M. Caughy et al.(2002)은 흑인 부모가 미취학자녀에게 민족-인종사회화를 가장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다른 연구(S. Quintana & E. Vera, 1999)에 의하면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민족사회화 수행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록 소수민족부모가 자녀의 발달, 즉 자녀의 역량과 사회적 경험의 변화에 상응하여 민족·인종에 대한 사회화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결과가 일부 보고되고 있지만, 자녀의 발달에 따른 부모의 일반적 사회화양상 변화에 대한 고찰에 따르면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 Maccoby(2007)에 의하면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특히 청소년기에 진입함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시간이 점진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거나 훈육하는 빈도 또한 감소한다. 따라서 소수민족부모가 수행하는 민족사회화 또한 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발달변화에 따라 오히려 그 빈도가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녀의 발달에 따른 부모의 민족사회화 전략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부족하고 상반된 결과가 혼재되어 있기 실정이다(R. Parke & R. Buriel, 2006). 본 연구에서는 취학연령 이후 미성년자녀를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 어머니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민족사회화를 고찰함에 있어 자녀연령의 효과를 확인하는 동시에 이를 통제할 목적으로 연구모델에 첫 자녀 연령 변수를 포함시켰다.

민족사회화는 사회화 주체의 인구학적 변인뿐만 아니라 부모가 소수민족으로서 갖는 태도, 신념, 경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외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민족문화적인 변인으로서 소수민족부모가 가지고 있는 민족정체성과 주류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을 이에 포함된 중요 요인으로 고려해왔다(D. Hughes, 2003). 첫째, 국외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할 경우 자녀를 대상으로 차별과 관련된 대처방법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으며(D. Hughes & L. Chen, 1997; D. Hughes, 2003), 특히 차별을 경험한 흑인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백인에 대한 경계심을 표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 Hughes & L. Chen, 1997). 차별을 경험한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문화사회화 또한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 Stevenson, R. Cameron, T. Herrero-Taylor, & G. Davis, 2002). 둘째는 소수민족부모의 민족정체성과 민족사회화의 관계이다. 민족정체성이란 개인의 민족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집단에 대한 지식, 가치관, 감정적 속성도 함께 포괄하여 의미한다(J. Phinney, 1992). 따라서 소수민족부모의 민족정체성이 강하고 자신의 민족 집단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면 부모가 자녀를 대상으로 민족 자부심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A. Romero, I. Cuellar, & R. Robers, 2000; A. Thomas & S. Speight, 1999), 편견에 대한 대비도 더 많이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왔다(D. Hughes, 2003; G. Knight et al., 1993).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았을 때 소수민족부모의 차별경험과 민족정체성은 전체적으로 민족사회화 수행과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각 변인과 민족사회화 하위유형의 관계를 살펴본 D. Hughes(2003)의 연구에 따르면 위의 두 변인은 각각 다른 하위유형과 더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경험의 경우 자녀를 대상으로 차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시키는 것, 즉 편견에 대한 대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반면, 민족정체성의 경우 민족 집단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문화적, 민족적 지식을 전수하는 문화사회화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두 변인 외에도 한국의 다문화가정 내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이 자녀양육에 대해 갖는 문화적 태도 또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이다. 한국 다문화가정은 대부분 한국으로 이주한지 오래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남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문화적 배경이 이질적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단일한 민족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주여성이 자녀에게 모국문화와 언어를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데에는 남편 혹은 다른 가족구성원의 이해가 중요한 요소이다(E. Lee, 2010; J. Yoon & H. Yoo, 2011). 이로부터 남편이 자녀를 한국적으로 키우기 원하는 경우 어머니가 민족사회화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이에 반해 남편이 자녀를 이중문화적으로 양육하고자 하면 어머니가 자신의 출신문화와 언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소수민족 이주민으로서 겪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민족사회화에 있어서 한국인 남편의 태도도 포함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차별경험, 민족정체성,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남편의 문화적 태도를 민족사회화 수행에 영향을 주는 민족문화적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7-8월 두 달 동안 한국남성과 결혼한 일본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총 243명을 대상으로 한국생활문화 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된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013)에 따르면 한일 다문화가정은 전체 다문화가정 중 5.8%를 차지하며 대략 15,500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일본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출신에 비해 그 비율이 다소 낮지만, 최근까지도 매년 1,100-1,200명 이상의 일본여성이 결혼을 위해 꾸준히 입국하며 일정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통일교를 통해 결혼이주역사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H. An, S. Cho, & W. Cho, 2011) 한일 다문화자녀의 평균연령은 동남아출신의 다문화가정 자녀보다 높다. 전체 다문화자녀의 경우 만 6세미만의 미취학아동이 절반이상(52.4%)을 차지하는 반면, 한일 다문화자녀의 경우 만 6세-17세의 자녀가 대부분(71.8%)을 차지한다. 국외선행연구에 따르면 소수민족부모는 민족·인종개념을 모르는 미취학아동보다 학령기·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민족사회화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D. Hughes et al., 2006) 이를 고려하여 학령기·청소년기

자녀의 비율이 높은 한일 다문화가정으로 한정지어 민족사회화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앞으로 다른 국가출신 이주여성의 민족사회화 수행을 돕는 데에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대상은 현재 한국인 남편과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본 출신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만 7-18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눈덩이 표집을 통하여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때 희망하는 참여자들에게 모국어 설문지를 제공하였다. 일본어 설문지는 한국어에 능통한 일본인이 번역한 후, 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원본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본고에서는 자녀의 나이를 응답하지 않은 16명을 제외한 총 22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의 평균연령은 45.89세(*SD*=5.76)로 최솟값 32세, 최댓값 64세를 갖는다. 조사대상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및 전문기술학교 이하와 대학교 및 대학원이 각각 85명(37.4%)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학교가 56명(24.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월 3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응답자와 월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각각 79명(36.1%)이었고, 월 200만원 미만이 61명(26.9%)이었다. 응답자 중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는 149명으로 65.6%를 차지하고, 직업이 없는 경우는 78명으로 34.4%를 차지했다. 결혼이주여성 첫 자녀의 연령은 첫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즉 만 13-18세가 131명(57.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첫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만 7-12세인 경우가 54명(28.6%), 만 19세 이상인 경우가 31명(13.7%)이었다.

2. 측정변수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민족사회화의 하위유형 중 '문화사회화'와 '편견에 대한 대비'이다. 각 민족사회화 유형의 측정에는 D. Hughes and D. Johnson(2001)이 개발한 Racial Socialization Scale의 하위척도를 한국의 한일 다문화가정 맥락에 맞게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화사회화 척도는 5문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가 .82이다. 일본문화에 대한 사회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척도의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일본의 문화나 중요한 역사에 대해 자녀에게 이야기 해준다', '일본 명절을 기념하기 위해 자녀와 무언가를 한다', '자녀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준다'등이 있다. 편견에 대한 대비 척도는 9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고, Cronbach's α는 .86이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자녀에게 (한-일)다문화가정의 자녀라서 사회생활에서 제한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준다', '자녀가 (한-일)다문화가정 아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더 잘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준다'등의 항목이 있다.

2) 독립변수

(1) 결혼이주여성의 인구학적 요인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취업여부, 첫 자녀의 연령을 결혼이주여성의 인구학적 요인으로 투입하였다.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및 전문기술학교 이하인 경우 0, 전문대학교인 경우 1, 대학교 및 대학원일 경우는 2의 값을 갖도록 하고 범주형 변수로 투입하였다. 가구소득 또한 범주형 변수로서 월 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1, 300만원 이상인 경우 2로 지정하였다. 취업여부는 현재 한국에서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27)

		N	Minimum	Maximum	Mean	Standard Deviation
Age			32	64	45.89	5.76
Education Level	High/Vocational School or Below	85(37.4%)				
	2-year College	56(24.7%)				
	4-year College/Graduate School	85(37.4%)				
Monthly Household Income (Unit: KRW)	Less than 2,000,000	79(36.1%)				
	2,000,000-3,000,000	79(36.1%)				
	More than 3,000,000	61(26.9%)				
Job Status	Yes	149(65.6%)				
	No	78(34.4%)				
Age of Firstborn Child	7 to 12 years old	65(28.6%)				
	13 to 18 years old	131(57.7%)				
	Over 19 years old	31(13.7%)				

의 취업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직업이 없으면 0,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1로 설정하여 범주형 변수로 지정하였다. 첫 자녀의 연령 또한 범주형 변수로서 첫 자녀가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인 경우 0,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경우 1, 만 19세 이상인 경우 2로 지정하였다.

(2) 결혼이주여성의 민족문화적 요인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 민족정체성,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남편의 문화적 태도를 민족문화적 요인으로 투입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2012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에서 사용한 질문(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을 사용하여 총 5개의 장소에서 경험한 차별을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2였다. 5개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차별경험의 평균값은 1.70(*SD*=.63)이었다. 민족정체성은 J. Phinney(1992)가 개발한 Ethnic Identity Scale을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인으로서, 즉 일본인으로서 갖는 민족정체성을 측정하였다. 총 12문항은 Affirmation and Belonging, Ethnic Identity Achievement, Ethnic Behavior 등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구체적인 문항에는 '나는 일본의 역사, 전통, 관습 등 일본에 대하여 더 잘 알기 위해 시간을 보낸다', '나는 일본에 대해 강한 애착을 느낀다'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5이다. 세 영역의 전체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민족정체성의 평균값은 3.21(*SD*=.51)이었다. 자녀양육에 대한 남편의 문화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귀하의 남편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나요?'라는 단일문항을 9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한국인에 가깝게'1, '양쪽 문화에 모두 가깝게'5, '일본인에 가깝게'9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4점 이하는 한국지향적 태도로 0, 5점은 이중문화적 태도로 1, 6점 이상은 일본지향적 태도로 2의 값을 할당하여 범주형 변수로 지정하였다. 응답자 중 남편의 자녀양육태도가 한국지향적인 경우는 119명(53.4%)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문화적인 경우가 97명(43.5%), 일본지향적인 경우가 7명(3.1%)이었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처리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인구학적·민족문화적 변인과 민족사회화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 독립표본 T검정,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민족사회화 수행을 예측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민족사회화 유형별 수행 수준

일본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수행하는 각 민족사회화 유형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화사회화는 평균값이 3.23(*SD*=.69, Range=1.60-5.00), 편견에 대한 대비는 3.19(*SD*=.65, Range=1.22-5.00)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일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가 민족사회화의 두 하위유형을 일정정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Differences in Ethnic Socialization by Demographic Variables (N=227)

Variables		Cultural Socialization		Preparation for Bias	
		M(SD)	F/t-value	M(SD)	F/t-value
Education Level	High/Vocational School or below	3.10(.74)	F=2.57	3.15(.68)	F=.60
	2-year College	3.36(.61)		3.27(.60)	
	4-year College/Graduate School	3.27(.69)		3.17(.65)	
Monthly Household Income (Unit: KRW)	Less than 2,000,000	3.17(.67)	F=1.31	3.17(.59)	F=.07
	2,000,000-3,000,000	3.15(.69)		3.17(.63)	
	More than 3,000,000	3.32(.71)		3.20(.69)	
Job Status	Yes	3.18(.71)	t=1.27	3.20(.65)	t=-.39
	No	3.31(.66)		3.16(.65)	
Age of Firstborn Child	7 to 12 years old	3.48(.64)	F=6.19**	3.37(.62)	F=3.84*
	13 to 18 years old	3.12(.72)		3.11(.67)	
	Over 19 years old	3.14(.57)		3.10(.51)	
	사후검정(Scheffe)[1)]	B, C < A		B < A	

*p < .05, **p < .01

1)A=7 to 12 years olds, B=13 to 18 years old, C=Over 19 years old

Table 3. Correlations among Demographic Variables and Ethnic Socialization (N=227)

Variables	1	2	3
1. Age	1		
2. Cultural Socialization	-.089	1	
3. Preparation for Bias	-.061	.592***	1

***p < .001

2. 인구학적 변인들과 민족사회화의 각 유형별 수행수준 간의 관계

결혼이주여성의 인구학적 변인(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수입, 취업여부, 첫 자녀 연령)들과 민족사회화의 각 유형별 수행수준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 별 차이와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결과는 <Table 2>와 <Table 3>에서 제시하였다.

인구학적 변인 중 첫 자녀 연령별 집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이 수행하는 문화사회화(F=6.19, p<.01)와 편견에 대한 대비(F=3.84, p<.05)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문화사회화의 경우 첫 자녀가 초등학생인 결혼이주여성 집단이 중고등학생 및 만 19세 이상 집단에 비해 더 자주 수행했으며, 편견에 대한 대비의 경우 첫 자녀가 초등학생인 이주여성 집단이 중고등학생 집단에 비해 더 많이 수행했다. 이외의 인구학적 변인, 즉, 이주여성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수입, 취업여부에 따라서 문화사회화와 편견에 대한 대비의 수행수준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민족문화적 변인들과 민족사회화의 각 유형별 수행수준 간의 관계

결혼이주여성의 민족문화적 변인과 민족사회화 수행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Table 5>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차별경험은 문화사회화(r=.171, p<.01), 편견에 대한 대비(r=.252, p<.001)와, 민족정체성은 문화사회화(r=.442, p<.001), 편견에 대한 대비(r=.266, p<.001)와 유의미한 정적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주여성이 차별을 많이 경험할수록, 혹은 일본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문화사회화와 편견에 대한 대비를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사회화의 수행수준은 자녀양육에 대한 남편의 문화적 태도에 따른 집단 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7.46, p<.01). 사후검정 결과 남편이 자녀를 한국인에 가깝게 양육하고자 하는 결혼이주여성 집단이 남편이 이중문화적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집단에 비해 문화사회화를 유의하게 적게 수행했다.

4. 민족사회화의 각 유형별 수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 (위계적 회귀분석)

결혼이주여성의 민족문화적 요인들이 문화사회화와 편견에 대한 대비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Table 4. Correlations among Ethnocultural Variables and Ethnic Socialization (N=227)

Variables	1	2	3	4
1. Discrimination Experience	1			
2. Ethnic Identity	.081	1		
3. Cultural Socialization	.171*	.442***	1	
4. Preparation for Bias	.252***	.266***	.592***	1

*p < .05, ***p < .001

Table 5. Differences in Ethnic Socialization by Husband's Ethnic Orientation in Child Rearing (N=227)

Variables		Cultural Socialization		Preparation for Bias	
		M(SD)	F-value	M(SD)	F-value
Husband's Ethnic Orientation in Child Rearing	More like Korean	3.06(.69)	F=7.46**	3.10(.67)	F=2.99
	Bi-culturally	3.41(.62)		3.26(.56)	
	More like Japanese	3.46(1.02)		3.54(.94)	
	사후검정(Scheffe)[1)]	A < B			

**p < .01

1) A=More like Korean, B=Bi-culturally, C=More like Japanese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본 결과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사회화와 편견에 대한 대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1단계에서 인구학적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 민족문화적 변인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6>, <Table 7>과 같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인을 모두 투입한 최종회귀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사회화에 대한 설명력은 27%로 나타났다(F=7.54, p<.001). 1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였으며, 2단계에서 민족문화적 변인에 의해 설명력이 22%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주여성의 문화사회화를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은 결혼이주여성 민족정체성(β=.39, p<.001), 중간 교육수준(β=.16, p<.01), 차별경험(β=.15, p<.01), 한국지향적인 남편의 양육태도(β=-.15, p<.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여성이 일본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이 높으면 자녀에게 문화사회화를 더 많이 수행하고, 최종학력이 전문대학교인 이주여

Table 6. Hierarchical Regression on Cultural Socialization (N=227)

Cultural Socialization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Constant		3.02		6.20***	1.36		2.76**
Demographic Variable	Age	.01	.07	.79	.00	.02	.25
	Age of Firstborn Child(13 to 18 years old)[1]	-.37	-.27	-3.08**	-.34	-.24	-3.22
	Age of Firstborn Child(Over 19 years old)	-.38	-.19	-2.08*	-.30	-.15	-1.83
	Education(Middle)[2]	.28	.16	2.11*	.25	.16	2.35*
	Education(High)	.14	.10	1.16	.07	.05	.61
	Household Income(Middle)[3]	-.03	-.02	-.22	.02	.01	.19
	Household Income(High)	.10	.07	.83	.14	.10	1.24
	Job Status[4]	-.09	-.06	-.84	-.09	-.06	-.98
Ethnocultural Variable	Discrimination Experience				.17	.15	2.56*
	Ethnic Identity				.54	.39	6.31***
	Husband's Ethnic Orientation(Korean)[5]				-.21	-.15	-2.41*
	Husband's Ethnic Orientation(Japanese)				.06	.02	.24
R^2			.09			.31	
Adj(R^2)			.05			.27	
F			2.40*			7.54***	

*p < .05, **p < .01, ***p < .001

1)reference=age of firstborn child(7 to 12 years old) 2)reference=education(low) 3)reference=household income(low) 4)reference=job status(no) 5)reference=husband's ethnic orientation in child rearing(bi-culturally)

Table 7. Hierarchical Regression on Preparation for Bias (N=227)

Preparation for Bias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Constant		3.16		6.86***	2.17		4.35***
Demographic Variable	Age	.00	.04	.40	-.00	-.02	-.20
	Age of Firstborn Child(13 to 18 years old)	-.31	-.24	-2.71**	-.30	-.29	-2.77**
	Age of Firstborn Child(Over 19 years old)	-.34	-.19	-1.98*	-.30	-.16	-1.84
	Education(Middle)	.07	.05	.59	.07	.05	.66
	Education(High)	-.05	-.04	-.43	-.09	-.07	-.82
	Household Income(Middle)	-.01	-.01	-.07	.03	.02	.30
	Household Income(High)	.03	.02	.25	.05	.04	.49
	Job Status	.09	.07	.95	.09	.07	.99
Ethnocultural Variable	Discrimination Experience				.27	.26	4.02***
	Ethnic Identity				.27	.21	3.14**
	Husband's Ethnic Orientation(Korean)				-.14	-.11	-1.61
	Husband's Ethnic Orientation(Japanese)				.09	.02	-.34
R^2			.04			.18	
Adj(R^2)			.01			.13	
F			1.24			3.70***	

*p < .05, **p < .01, ***p < .001

성이 고등학교/전문기술학교에 비해 문화사회화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문화사회화를 많이 수행했으며, 남편이 한국지향적인 양육태도를 가지면 남편이 이중문화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보다 결혼이주여성이 문화사회화를 적게 수행했다.

편견에 대한 대비에 대한 최종회귀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3%로 나타났다(F=3.73, p<.001). 구체적으로 편견에 대한 대비를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은 어머니의 차별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β=.26, p<.001). 그 다음으로 첫 자녀의 연령(β=-.29, p<.01)과 어머니의 민족정체성(β=.21, p<.01)이 편견에 대한 대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자녀의 연령이 만 13-18세인 경우 만 7-12세인 경우에 비해 편견에 대한 대비를 유의하게 적게 수행하였으며, 이주여성의 민족정체성이 강하면 편견에 대한 대비를 더 많이 수행하였다.

Ⅴ.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기에 있는 한국사회가 결혼이주여성의 양육경험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고, 결혼이주여성이 모국문화와 이주민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민족사회화를 예측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일본 출신 결혼이주여성 227명을 표본으로 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국외선행연구를 토대로 민족사회화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결혼이주여성의 인구학적 변인과 민족문화적 변인으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선별하였다. 먼저 인구학적·민족문화적 변인에 따라 민족사회화 수행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민족사회화 두 하위유형인 문화사회화와 편견에 대한 대비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민족사회화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로 민족문화적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문화사회화와 편견에 대한 대비 모두 일정정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일부 수행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변인 중 첫 자녀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만 7-18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주여성 어머니 집단 내에서도 첫 자녀가 초등학생 집단이 경우 중고등학생인 경우에 비해 문화사회화와 편견에 대한 대비를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민족사회화 수행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민족문화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이주여성의 차별경험과 일본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문화사회화와 편견에 대한 대비를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에 대한 남편의 문화적 태도의 경우 남편이 한국지향적인 경우 이중문화적인 경우에 비해 이주여성이 문화사회화를 유의하게 적게 수행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민족사회화 수행은 조사대상인 일본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에 있어서 일반적인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민족사회화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인구학적 변인이 일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사회화의 경우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이주여성이 고등학교/전문기술학교를 졸업한 이주여성에 비해 문화사회화를 더 많이 수행하여, 이는 중간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소수민족부모가 민족사회화를 더 많이 수행한다는 국외선행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다(M. Caughy et al., 2002; M. Thornton, 1997). 편견에 대한 대비의 경우, 첫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경우 초등학생인 경우에 비해 이를 적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부모가 사회화를 적게 수행하며(E. Maccoby, 2008), 소수민족부모가 취학자녀에 비해 미취학자녀에게 인종-민족사회화를 더 많이 수행한다는 연구결과(M. Caughy et al., 2002)와 유사한 맥락의 결과이다.

셋째, 민족사회화의 수행에 있어서 민족문화적 변인의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의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고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차별경험과 일본인으로서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문화사회화와 편견에 대한 대비를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주여성의 차별경험이 편견에 대한 대비를, 일본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이 문화사회화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나 D. Hughes(2003)의 선행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외와 마찬가지로 소수민족인 결혼이주여성의 민족사회화에 있어서 차별경험과 민족정체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넷째, 민족사회화 중에서도 특히 문화사회화에 있어서 남편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자녀를 한국 지향적으로 양육하기 원하는 경우 남편이 이중문화적인 양육태도를 갖는 경우에 비해 결혼이주여성이 유의미하게 문화사회화를 적게 수행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가 민족에 대해 갖는 태도와 신념이 민족사회화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D. Hughes, 2003), 특히 한

국 다문화가정에서는 남편 혹은 가족 구성원의 이해가 부족하면 결혼이주여성이 자녀에게 모국어와 모국 문화를 가르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J. Yoon & H. Yoo, 2011)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맥락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 한국남편이 결혼이주여성 아내의 문화 전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는 경우 결혼이주여성은 자녀에게 모국문화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화사회화를 소극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이 민족사회화를 올바르게 수행하여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의지뿐만 아니라 남편의 적극적인 이중문화적 태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민족사회화 수행에 있어서 민족문화적 변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어머니가 일본인으로서 갖는 민족정체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별 경험과 자녀양육에 대한 남편의 문화적 태도와 같이 사회적 맥락과 관련된 요인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민족사회화를 연구할 때에 인구학적 변인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주류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특히 결혼이주여성과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여성의 모국문화에 대해 갖는 태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의 태도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한국사회의 태도와 인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모국 문화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교육 및 정책적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내의 한국남성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이주여성 어머니의 출신문화와 언어에 대해 이해를 돕고, 또한 이주여성 어머니가 출신배경 및 문화에 대해 가르치고 소수민족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민족사회화를 격려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요할 것이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보다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머니 역할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그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에 기여하여 사회통합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민족사회화의 예측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다문화가정 특유의 맥락에 적합한 민족사회화 모델이 필요하다. 비록 본 연구에서 국외선행연구의 척도를 한국 다문화가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지만, 두 개의 문화를 공유하는 한국 다문화사회의 사회적 배경을 온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문화사회화에 대한 문항의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에 대한 문화사회화가 아니라 어머니의 출신국가, 즉 일본의 문화에 대한 사회화만 살펴본 것이 이에 해당되는 한계점일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고유의 이론과 척도가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 다문화가정의 민족사회화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조사대상이 일본 출신 결혼이주여성에 한정되어서 다른 국가 출신의 이주여성에게까지 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013)에 따르면 일본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한일 다문화가정이 학령기·청소년기 자녀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어머니의 민족사회화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를 결혼이주여성 전반에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는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결혼이주여성을 출신국가와 문화에 따라 세부적으로 더 연구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힌다.

셋째, 일본인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연령이 만 7-18세로 범주가 넓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경우 만 7-18세, 즉 취학연령 이후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가 일반적으로 인지하는 민족사회화의 수행에 있어서 자녀연령의 효과를 확인 및 통제하기 위해 첫 자녀의 연령을 인구학적 변인으로 투입했고, 첫 자녀 연령에 따라 수행양상에 일부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외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인지능력이나 경험, 즉 세부적인 연령대에 따라 부모가 수행하는 민족사회화, 특히 편견과 차별에 대비시키는 사회화 양상이 상이해질 수 있기(D. Hughes & L. Chen, 1997; D. Hughes & D. Johnson, 2001; A. Umana-Taylor & M. Fine, 2004)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민족사회화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대상자녀의 연령대를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응답만을 수집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민족사회화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수민족부모의 민족사회화는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민족사회화가 자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의 사회화와 관련해서 자녀를 포함하여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다문화가정 내의 부모-자녀 역동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횡단자료이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민족사회화 수행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

계가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즉, 독립변수들이 민족사회화 수행을 선행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체계적인 표집에 의한 종단자료를 구축하여 민족사회화에 관한 종단적인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 민족사회화 수행 양상을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하여 탐색적인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자녀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민족사회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다문화가정 자녀의 적응에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An, H. J., Cho, S. S., & Cho, W. T. (2011). The experience of history education related to Japan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ith Japanese mothers. *Journal of Regional Studies, 19*(3), 47-75.

Bae, K. E., Lee, K. H., Kim, Y. H., Kim, S., Kim, H. K., & Kim, J. H. (2010). Child-rearing practices and parenting efficacy of marriage-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6*(3), 175-183.

Barnes, E. J. (1980). The Black community as a source of positive self-concept for Black children: A theoretical perspective. In R. L. Jones (Ed.), *Black psychology* (pp. 667-692). New York: Harper & Row.

Biafora, F. A., Warheit, G. J., Zimmerman, R. S., Gil, A. G., Apospori, E., Taylor, D., & Vega, W. A. (1993). Racial mistrust and deviant behaviors among ethnically diverse Black adolescent boy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11), 891-910.

Bowman, P. J., & Howard, C. (1985). Race-related socialization,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A study of Black youths in three-generation famili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4*(2), 134-141.

Caughy, M. O., O'Campo, P. J., Randolph, S. M., & Nickerson, K. (2002). The influence of racial socialization practices on the cognitive and behavioral competence of African American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73*(5), 1611-1625.

Choi, H. (2009).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pertaining to the acculturation strategies among immigrated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1*(1), 163-194.

Chung, K. (2008).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s Korean migration and their adjustment of life in Korea.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 68-103.

Hamm, J. V. (2009). Barriers and bridges to positive cross-ethnic relations: African-American and White parent socialization beliefs and practices. *Youth & Society, 33*(1), 62-98.

Hughes, D., & Chen, L. (1997). When and what parents tell children about race: An examination of race-related socialization among African American familie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1*(4), 200-214.

Hughes, D., & Johnson, D. J. (2001). Correlates in children's experiences of parents' racial socialization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4), 981-995.

Hughes, D. (2003). Correlates of African American and Latino parents' messages to children about ethnicity and race: A comparative study of racial socializa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1*(1-2), 15-33.

Hughes, D., Rodriguez, J., Smith, E. P., Johnson, D. J., Stevenson, H. C., & Spicer, P. (2006). Parents' ethnic-racial socialization practices: A review of research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42*(5), 747-770.

Kim, H. K. (2009). The influence of general characteristics, perception of the culture gap, and cultural adaptation among mothers of young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on parenting efficacy.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5), 229-254.

Kim, H. J. & Kim, J. M. (2015).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improving parenting efficacy of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3*(2), 135-148.

Kim, M. J. (2012). A study of ethnic-racial socialization of foreign mothers in multiracial familie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5*(2), 73-89.

Knight, G. P., Bernal, M. E., Garza, C. A., Cota, M. K.,

& O'campo, K. A. (1993). Family socialization and the ethnic identity of Mexican-American childre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4*(1), 99-114.

Lee, E. H. (2010). Parents-children relationships on child custody in multicultural family: Based on agricultural region in Gyeongbuk.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4*(3), 109-129.

Maccoby, E. E. (2007). Historical overview of socialization research and theory. In J. Grusec & P. Hastings (Eds.). *Handbook of socialization.* (pp. 13-41). New York: Wiley.

Marshall, S. (1995). Ethnic socialization of African American children: Implications for parenting, identity developments,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4), 377-396.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3). *A study o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2* (Government Publication No. 11-1383000-000384-12) Seoul, Korea: Author.

Ou, Y. & McAdoo, H. P. (1993). Socialization of Chinese American children. In H. P. McAdoo (Ed.), *Family ethnicity: Strength in diversity* (pp. 245-270). Thousand Oaks, CA: Sage.

Park, Y. (2010). Investigation of immigrant mothers' parental experiences and teachers' childcare experience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0*(1), 197-223.

Park, M. J., & Lee, B. I. (2010). The grounded theory on the adaptational process and interaction-behavioral types of young children with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5*(1), 129-151.

Parke, R. D., & Buriel, R. (2006). Socialization in the family: Ethnic and ecological perspectives. In W. Damon, R. M. Lerner,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429-504).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Pessar, P. (1995). The elusive enclave: Ethnicity, class, and nationality among Latino entrepreneurs in Greater Washington, DC. *Human Organization, 54,* 383-392.

Phinney, J. S. (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08*(3), 499-514.

Phinney, J. S. (1992). The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A new scale for use with diverse group.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7*(2), 156-176.

Quintana, S. M., & Vera, E. M. (1999). Mexican American children's ethnic identity, understanding of ethnic prejudice, and parental ethnic socialization.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1*(4), 387-404.

Rockquemore, K. A., Laszloffy, T., & Noveske, J. (2006). It all starts at home: Racial socialization in multiracial families. In D. Brunsma (Ed.), *Mixed messages: Multiracial identities in the color-blind era* (pp. 203-216).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Rollins, A., & Hunter, A. G. (2013). Racial socialization of biracial youth: Maternal message and approaches to address discrimination. *Family Relations, 62*(1), 140-153.

Romero, A. J., Cuellar, I., & Robers, R. E. (2000). Ethnocultural variables and attitudes towards cultural socialization of childre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1), 79-89.

Shin, D. J. (2012). Discrimination matters, social contexts for foreign workers' crime problem in South Korea as a multicultural Society.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92*(12), 183-217.

Spencer, M. B. (1983). Children's cultural values and parental child rearing strategies. *Developmental Review, 3*(4), 351-370.

Statistics Korea. (2014). *Vital Statistics.* Retried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24&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

Stevenson, H. C., Cameron, R., Herrero-Taylor, T., & Davis, G. Y. (2002). Development of the teenager experience of racial socialization scale: Correlates of race-related socialization frequency from the perspective of Black youth. *Journal of Black Psychology, 28*(2), 84-106.

Thomas, A. J., & Speight, S. L. (1999). Racial identity and racial socialization attitudes of African American parents. *Journal of Black Psychology, 25*(2), 152-170.

Thornton, M. C. (1997). Strategies of racial socialization among Black parents: Mainstream, minority, and cultural messages. In R. J. Taylor, J. S. Jackson, &

L. M. Chatters (Eds.), *Family life in Black America* (pp. 201-215). Thousand Oaks, CA: Sage.

Thornton, M. C., Chatters, L. M., Taylor, R. J., & Allen, W. R. (1990). Sociodemographic and environmental correlates of racial socialization by Black parents. *Child Development, 61*(2), 401-419.

Umana-Taylor, A. J., & Fine, M. A. (2004). Examining ethnic identity among Mexican-origin adolescent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6*(1), 36-59.

Ward, J. (1991). Eyes in the back of your head: Moral themes in African American narratives of racial conflict. *Journal of Moral Education, 20*(3), 267-281.

Williams, D. R. (1999).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The added effects of racism and discrimination. In N. Adler & M. Marmot (Eds.),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in industrial nations: Social, psychological, and biological pathway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Vol. 896, pp. 173-188). New York: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Yang, K. M. (2009). The factors influencing Korean adolescents' attitude to minority group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3*(2), 59-79.

Yoon, J., & Yoo, H. (2011). A study of married international immigrant mothers' doing mothers. *Journal of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11*(2011.10), 41-80.

Zimmerman, M. A., & Ramirez-Valles, J., Washienko, K. M., Walter, B., & Dyer, S. (1996).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of enculturation for Native American yout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2), 295-310.

□ Received: March 15, 2015
□ Revised: June 10, 2015
□ Accepted: June 12, 2015